

국어 영역(B형)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청소년 단체와 여행사 간의 협상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청소년 단체에서 리더십 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단체 대표는 협상을 통해, 선택한 여행사 상품의 세부 조건을 조정하려 한다.

청소년 단체 대표: 귀사가 제시하신 여행 일정과 교육 프로그램 계획서는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 숙소가 견학 장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더군요.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운 숙소로 옮겼으면 합니다.

여행사 직원: 숙소가 견학 장소와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저희 여행사 직영 숙소라서 저희도 좋지만, 고객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단체 행사를 위한 넓은 공간도 있습니다. 가까운 숙소로 옮기게 되면 제시하신 가격으로는 상품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단체 대표: 그래요? 그렇다면 견학지 중에 ○○은 생략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곳은 이번 리더십 캠프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요. 입장료와 버스 유류비 등을 빼면 비용이 절감되어 숙소를 옮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여행사 직원: ○○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있고 입장료도 저렴해 비용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 그러시면 비용을 조금만 더 들이시는 게 어떨까요? 정확한 인상분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단체 대표: 아,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현재의 금액도 저희가 책정한 예산을 조금 초과한 것이어서요. 조정이 어려우면 다른 여행사를 알아볼 수밖에 없네요.

여행사 직원: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 견학을 생략하고 첫 날 저녁 프로그램을 귀 단체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은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라 그걸 제외하면 비용을 꽤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소년 단체 대표: 글쎄요, 리더십 강의나 모듬 활동 정도면 모를까 프로그램 전체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력이나 장비도 부족하고 프로그램 구성도 쉽지 않아서요. 음, 그러면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만 저희가 진행하면 어떨까요?

여행사 직원: 네, 그럼 그렇게 하지요. 1부는 귀 단체에서 진행하시고 2부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 견학을 취소하고 프로그램의 절반을 귀 단체에서 진행하시면 숙소를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숙소를 옮기면 단체 행사 공간은 협소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단체 대표: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죠. 단, 그 외에 다른 여건이 기존 숙소보다 나빠지면 곤란합니다.

여행사 직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정안으로 준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오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단체 대표: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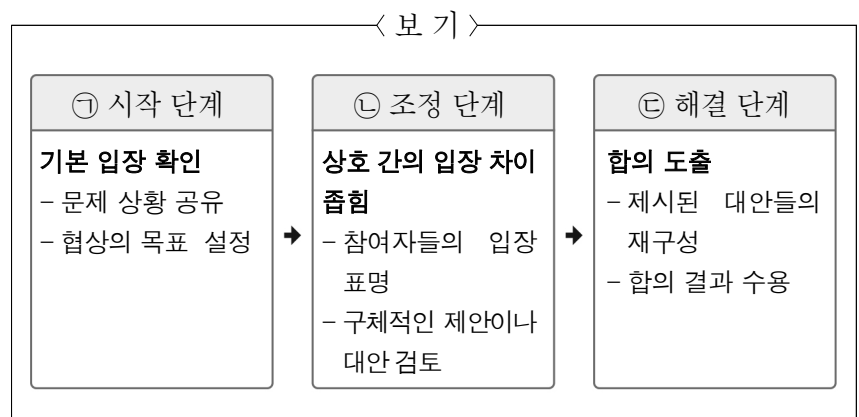
1. 협상에 대한 설명 중, 위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협상의 쟁점은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기도 한다.
- ② 협상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협상 당사자는 양보와 설득을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타협안을 모색한다.
- ④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협상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갈등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 ⑤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제안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2. 청소년 단체 대표(A)와 여행사 직원(B)의 협상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다.
- ② A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타협을 유도하고 있다.
- ③ A는 갈등을 회피하며 기존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공격하고 있다.
- ⑤ B는 상대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3. <보기>의 협상 절차를 바탕으로 위 협상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여행사 직원은 숙소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혔군.
- ② ㉡에서 청소년 단체 대표는 상품 가격을 낮추면 여행사의 기존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군.
- ③ ㉡에서 여행사 직원은 상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군.
- ④ ㉡에서 청소년 단체 대표는 상대의 제안을 검토한 후 서로의 양보가 전제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군.
- ⑤ ㉢에서 청소년 단체 대표는 일정한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며, 도출된 합의안을 수용했군.

[4 ~ 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보물찾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갑자기 무슨 보물찾기 이야기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네요. 저는 방송을 제작하고 이를 시청하는 과정이 보물찾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은 방송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슈, 인코딩, 코드, 디코딩 등의 생소한 용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드라마로 범위를 좁혀 설명하자면, 이슈란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소재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제작자에 의해 이슈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 것을 코드라고 하고, 그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또한 디코딩은 시청자가 방송 제작자에 의해 코드화된 내용을 메시지로 풀이하는 과정입니다. 즉 방송 제작자가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라면, 시청자는 보물을 찾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도 있네요. 일단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한 후)

동영상을 보면서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불행에만 집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인공이 불행해지기 전에 천둥번개가 치는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불행이 이슈라고 한다면, 천둥번개가 치는 장면은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주인공이 불행해질 것을 예측하는 과정이 바로 디코딩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드라마를 포함한 방송에는 다양한 코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방송 제작자는 의미 없는 인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방송 제작자의 인코딩에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면, 디코딩을 통해 메시지로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시청자의 몫입니다. 능동적인 시청자는 이렇게 숨겨진 코드들을 찾아내면서 보물찾기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발표자가 사용한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이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의 출처를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5. 위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자는 시청자가 메시지를 이끌어내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군.
- ② 발표자는 방송 제작자가 의미 없는 인코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③ 발표자는 시청자가 방송 제작자의 인코딩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발표자는 디코딩을 통해 방송을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⑤ 발표자는 방송 제작자의 인코딩을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숨기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6 ~ 7] <보기 1>은 ‘청소년참여활동의 활성화’를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글의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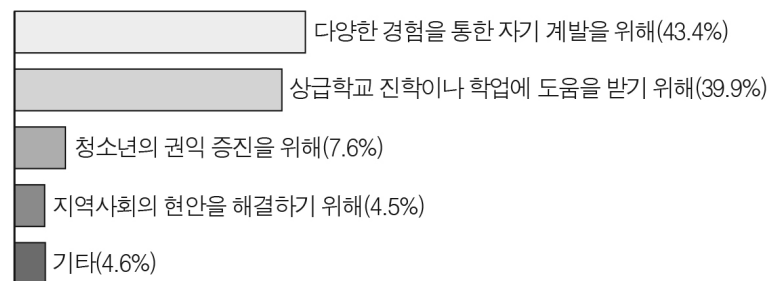
〈보기 1〉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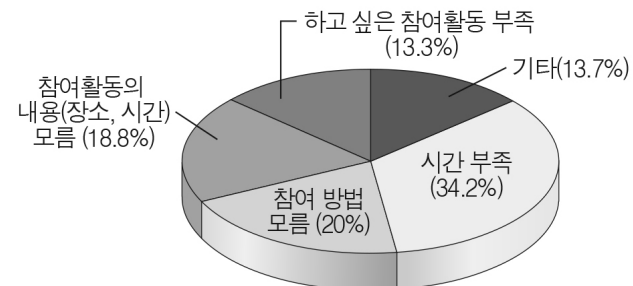
청소년이 새로운 문화 및 첨단산업의 생산과 소비 주체로 등장하면서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참여활동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선입견으로 부모가 반대하거나, 입시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커서 실제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나) 설문 자료

1. 청소년참여활동 참여 목적



2. 청소년참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다) 인터뷰 내용

“청소년참여활동은 청소년의 자아성취와 청소년이 속한 학교나 조직,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충족하는 청소년참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활동의 방법 및 활동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보기 2〉

I. 서론

II. 본론

1. 현황

가.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

나.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권장 ㉠

2. 문제점

가. 청소년참여활동의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 미흡 ㉡

나.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다. 청소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청소년참여활동 프로그램 부족
라.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참여 시간 부족

3. 개선 방안㉠
 가.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나.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참여활동의 의의 홍보
 다. 청소년참여활동 프로그램의 유형 조사㉡

III. 결론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가)를 참고하여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고친다.
 ② (나)-2를 참고하여 ㉡을 ‘청소년참여활동의 참여 방법과 내용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고친다.
 ③ ㉡은 인식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가)를 참고하여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으로 보완한다.
 ④ ‘II-2-라’를 고려하고 (나)-1을 참고하여 ㉡의 하위 항목에 ‘진학 및 진로와의 연계성을 통한 참여 시간 확보’를 추가한다.
 ⑤ ‘II-2-다’를 고려하고 (다)를 참고하여 ㉡을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고친다.

7. <보기 2>의 본론 일부를 <조건>에 따라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II-3-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 전문가의 견해를 언급할 것.
 -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를 제시할 것.
- ① 학부모들은 자녀가 청소년참여활동에 참여하면 학업에 소홀해질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에 따르면 청소년참여활동은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부각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청소년참여활동은 청소년이 학교에서 얻기 힘든 여러 가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청소년참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학부모의 반대 때문에 청소년참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이는 학부모에게 활동의 의의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정책 당국의 책임이 크다. 그러므로 정책 당국은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④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서로의 의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은 부모와 자주 대화를 나누어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부모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청소년참여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⑤ 청소년참여활동의 가치를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아 이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대중매체보다 연수의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러므로 학부모 연수를 활성화하면 인식이 개선되어 자녀의 참여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8. <보기>의 항목 중에서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답사 목적을 제시한다.
 ㄴ. 답사 대상의 가치를 언급한다.
 ㄷ. 답사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한다.
 ㄹ. 답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느낌을 덧붙인다.
 ㅁ. 답사 대상에 대해 사전에 조사한 내용을 제시한다.

<답사 보고서>

제 목 :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 동구릉을 다녀와서
 작성일 : 2014년 4월 ○일
 작성자 : □□ 고등학교 ‘문화 유적 탐방 동아리’

우리 동아리에서는 4월 정기 답사지로 ‘동구릉’을 선정했다. 지난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곳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구릉을 답사하여 조선 왕릉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동구릉에는 아홉 개의 왕릉이 모여 있다. 우리는 먼저 태조의 무덤인 건원릉에 들렀다. 그곳은 참배객을 위한 속세의 공간인 진입 공간, 참배자가 죽은 자에게 예(禮)를 올리는 제향 공간, 선왕의 봉분이 있는 성역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봉분은 잔디가 아닌 억새풀로 덮여 있었다. 고향을 그리워했던 태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의 흙과 억새를 가져다 덮어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졌다.

이후에 현릉, 목릉을 차례로 둘러보는 동안 왕릉의 나무들과 주변의 산림 덕분인지 삼림욕을 하는 듯한 상쾌한 느낌을 받았다. 조선 왕릉은 대도시 주변의 생태 환경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니, 조선 왕릉은 먼 과거의 유산만이 아닌 현재에도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가)를 읽고, ‘충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써 보았다. (나)는 그 초고이다.

(가) 신문 기사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충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 주체에 소음 피해를 신고하면 관리 주체는 소음을

유발한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충간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 조정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나) 학생의 글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충간소음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동안 충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과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드디어 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안이 ㉠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법적 규제만으로 충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법적 규제는 충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이고,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왜냐하면 법적 해결에만 의존할 경우,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어 오히려 이웃 간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 자연에서 나는 소리 같은 백색 소음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소음이다. 따라서 법적 규제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공동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 주택과 달리 공동 주택은 천장과 바닥을 이웃과 ㉣ 함께 공유한다. 따라서 개인만의 공간이 아닌 공동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충간소음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이를 ㉤ 개발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충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9. (가)를 읽은 학생이 (나)를 쓸 때 활용한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기사에서 언급한 개정안의 적용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 ②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글의 시작 부분에서 기사의 내용을 언급한다.
- ③ 기사를 읽고 가지게 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의문의 형식을 사용한다.
- ④ 충간소음을 해결하는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 주택의 특징을 제시한다.
- ⑤ 기사에서 언급한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와 우려되는 점을 함께 제시한다.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마련된’으로 고쳐야겠어.
- ② ㉡은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쳐야겠어.
- ③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은 단어의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함께’를 삭제해야겠어.
- ⑤ ㉤은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개발’로 고쳐야겠어.

11. <보기>는 표준 발음법의 일부이다. 이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ㄴ, ㄹ), ㄴ(ㄴ, ㄷ, ㄹ, ㄴ, ㄹ, ㄴ)’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 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붙임 1] ‘ㄴ’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ㄴ]로 발음한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먹물’은 제18항에 따라 [명물]로 발음해야겠군.
- ② ‘물약’은 제29항에 따라 [물낙]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한 입’은 제29항에 따라 [한닙]으로 발음해야겠군.
- ④ ‘집일’은 제29항에 따라 [집닐]로, 다시 제18항에 따라 [집닐]로 발음해야겠군.
- ⑤ ‘색연필’은 제29항에 따라 [색년필]로, 다시 제18항에 따라 [생년필]로 발음해야겠군.

12. <보기>는 ‘문법 학습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이다. 이를 참고할 때, (가)~(마)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질문】

선생님!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만큼, 대로, 뿐’은 어떤 경우에 띄어 쓰고 어떤 경우에 붙여 쓰나요? 그리고 ‘못하다’와 ‘못 하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만큼, 대로, 뿐’이 조사로 쓰일 때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쓴다. 그러니까 앞말이 체언일 경우에는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사형일 경우에는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못 하다’는 부사인 ‘못’이 동사인 ‘하다’를 꾸미는 것이고, ‘못하다’는 형용사나 동사로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란다. 형용사일 때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 등의 뜻을 나타내지.

(가) 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 성적이 오르겠지?

(나) 나는 나대로 열심히 공부했어.

(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고작 그것 뿐이야?

(라)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다.

(마) 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못하구나.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3. B를 고려하여 A를 고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틀린 문장		B: 고쳐야 하는 이유		고친 문장
그는 슈퍼맨이라 불리우는 사람이다.	⇒	피동 표현이 잘못됨.	⇒	㉠
손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실게요.	⇒	화자의 약속,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으게요’를 부적절하게 사용함.	⇒	㉡
그는 설레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	‘설레다’의 명사형이 잘못됨.	⇒	㉢
주호는 나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	비교하는 대상이 불분명함.	⇒	㉣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올해 신상품이셔요.	⇒	높임 표현이 잘못됨.	⇒	㉤

- ① ㉠: 그는 슈퍼맨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② ㉡: 손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③ ㉢: 그는 설렘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④ ㉣: 주호는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
⑤ ㉤: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올해 신상품이에요.

14. 다음은 사전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

[1]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 ①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인 대상, 또는 상태나 상황을 겪거나 일정한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격 조사.
②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는 대체로 조사 ‘로’로 바뀔 수 있다.

[2]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또는 연결 어미 ‘-지’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연결 어미 ‘-지’ 뒤에 오는 ‘가’는 ‘를’이나 ‘로’로 바뀔 수 있으며, 흔히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이 ㉡

[1]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 ① 어떤 상태를 보이는 대상이나 일정한 상태나 상황을 겪는 경험주 또는 일정한 동작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②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의 ‘이’는 대체로 조사 ‘으로’로 바뀔 수 있다.
[2]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받침 있는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보 기 >

- ㉠ 올챙이가 ㉡ 개구리가 되었다.
- 방이 ㉢ 깨끗하지가 않다.
- 그 늙던 갈대밭이 모두 ㉣ 뽕밭이 되었다.
- 나는 ㉤ 백두산이 제일 보고 싶다.

- ① ㉠의 ‘가’와 ㉡의 ‘이’는 ‘가[1]’과 ‘이[1]’을 통해 앞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선택된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② ㉡의 ‘가’는 조사 ‘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가[1]㉡’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부정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③ ㉢의 ‘가’는 ‘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가[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④ ㉣의 ‘이’는 조사 ‘으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이[1]㉣’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⑤ ㉤의 ‘이’는 ‘이[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술어로 사용된 용언에 접미사나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키면 사동이나 피동, 높임, 시간 표현, 주체의 심리적 태도 등 다양한 문법 범주를 실현할 수 있다.

- 할머니께서 진지를 ㉠ 드신다.
- 아버지께서 연을 ㉡ 날리시고 있다.
- 그는 운동장을 열심히 ㉢ 뛰었다.
- 나는 지금 영화관에 ㉣ 가겠다.
- 도둑이 경찰에게 ㉤ 쫓기고 있다.

- ① ㉠의 ‘-시-’와 ㉡의 ‘-시-’는 각각의 행위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② ㉠의 ‘-ㄴ-’과 ㉡의 ‘-었-’은 현재나 과거 등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③ ㉢의 ‘-리-’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④ ㉣의 ‘-겠-’은 행위 주체인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⑤ ㉤의 ‘-기-’는 행위 주체인 ‘경찰’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16. <보기>의 ㉠ ~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千世(천 세)우희 미리 定(정)ᄒᆞᆫ 漢水(한수) 北(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ᄒᆞ샤 卜年(복년)이 ㉠ ᄒᆞᆫᄒᆞᆫ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 ᄒᆞ샤사 더욱
㉡ 구드시리이다
㉢ 님금하 아ᄒᆞ쇼셔 ㉣ 洛水(낙수)에 山行(산행)가 이셔 하나
빌 ㉤ 미드니잇가

<제125장>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세종 29년) —

[현대어 풀이]

천 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를 물린 어진 임금이 나라를 여[開]시어 왕조가 **끝이 없으시니**,
성신(聖神)이 대를 이으시어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야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를 **믿으시겠습니까?**

- ① ㉠: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었다.
② ㉡: 선어말어미 ‘-이-’는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③ ㉢: 조사 ‘하’는 부르는 대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④ ㉣: ‘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⑤ ㉤: 어간의 받침을 어간의 종성과 어미의 초성으로 겹쳐 표기하였다.

[17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우려고 책을 읽으려면 모름지기 번거로움을 참고 세밀하게 이해해 나가야 한다. 절대로 성급한 마음을 지녀서는 안 된다. 만약 “꼭 책을 읽어야 해? 지름길이 따로 있는데.”라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이다. 배우는 자가 도리(道理)를 얻기까지는 여러 겹으로 포장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아 곧바로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다. 한 겹을 벗겨 내어 또 한 겹을 보고, 또 한 겹을 벗겨 내어 또 한 겹을 보아 가야 한다. 겹을 다 벗겨 내면 비로소 살이 보이고 살을 발라내고 나면 뼈가 보이며, 뼈가 다 드러나면 그제야 골수가 보이는 것이다. 거친 마음과 허황된 마음을 품는다면 결코 얻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독서란 비유하자면 집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만약 밖에서 집의 외양을 보고는 문득 ‘집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집을 알 연고가 없게 된다. 모름지기 안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보고서 이 집은 몇 칸 집이며 몇 개의 창살이 있다고 해야 한다. 한 번 보고 또 거듭 보아서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어야 바야흐로 옳다.

(중략)

사람들은 “독서는 마땅히 조용히 완미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스스로를 나태하게 만드는 말이다. 만약 책을 읽었는데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비록 급히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놓아 버리지 않는 것이 그래도 낫다. 만약 하루 종일 배회하면서 ‘조용하다’고 말한다면 공부하는 것이라 간주할 수 없다. 약 달이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모름지기 쉼 불로 달인 다음에 약한 불로 달여야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배움에는 늙음과 젊음이 같지 않다. 젊을 때는 정력이 남으니 모름지기 읽지 않는 책이 없어야 하고 그 뜻을 궁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나이가 들 것 같으면 모름지기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힘을 써야 한다. 한 권의 책을 읽다가 문득 나중에 공부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가서 이해하여 모름지기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찾아내 지극한 곳까지 궁구하는 것이 좋다.

정신이 우수한 사람은 널리 취해 얻는 것이 많다. 정신이 부족한 사람은 다만 말뜻이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함양해야 한다. 중년이 지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으려 들면 안 된다. 단지 조금씩 조금씩 음미하고 사색해야 의미가 절로 드러난다.

— 양응수, 「독서법」 —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②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읽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③ 글을 대충 훑어보지 말고 정밀하게 읽어야 한다.
④ 글쓴이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⑤ 자신의 역량에 따라 독서량을 조절해야 한다.

18.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민수’에게 조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주형 : 민수야, 어제 졸업한 선배가 와서 이야기한 것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

민수 :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3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것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난 1년에 겨우 2권 읽을까 말까 한데…….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 그래서 난 오늘부터 책을 많이 읽기로 했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도서 100권을 일 년 동안 다 읽을 거야.

- ① 성급하게 독서량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읽어야 해요.
② 책을 무작정 읽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책부터 점점 어려운 책으로 순서를 정해 읽는 것이 좋아요.
③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도서만 읽기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정해서 읽는 것이 좋아요.
④ 아무리 많은 양의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책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⑤ 읽은 책의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읽어도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며 읽는 것이 중요해요.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개체적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역사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파악된 과거의 사실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사가의 역사 연구 태도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A] 랑케는 역사적 사실을 ‘신(神)의 손가락’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계의 사물과 동일시했다. 그는 각 시대나 과거의 개체적 사실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유의 가치를 지녔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역사가가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신성한 역사를 오염시키는 것이라 여기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역사는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확인을 통해 역사를 인식해야 하며, 목적을 앞세워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드로이젠은 역사적 사실이란 어디까지나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학문적으로 구성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역사를 단순히 과거 사건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으며,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하나의 지식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사료 고증만으로는 과거에 대한 부분적이고 불확실한 설명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드로이젠이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을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역사가가 임의로 과거의 사실을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역사가가 과거의 개체적 사실들 가운데 일부를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하기 이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범주’로서의 ‘역사’가 있다고 보았다. 즉 범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선형적으로 규정한다고 본 것이다. 이때, 역사인식의 범주를 형성하는 것은 ‘인륜적 세계’이다. 인간은 태초부터 주어진 자연의 세계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인륜적 세계에 살고 있다. 따라서 역사는 이와 같은 인륜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며 또한 그것과의 연관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드로이젠은 랑케의 객관적 역사인식과 달리 역사인식의 주관성을 주장하면서도, 선형적으로 주어진 인륜적 세계가 역사가의 역사인식과 해석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주관주의적 역사인식론은 결코 상대주의로 나아가지 않았다.

* 범주: 사물의 개념을 분류할 때 그 이상 일반화할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최고의 유개념(類概念).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랑케는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파악을 강조하였다.
 - ② 랑케는 과거 사건들의 고유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드로이젠은 인륜적 세계와 자연 세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
 - ④ 드로이젠은 사료 고증만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았다.
 - ⑤ 드로이젠은 범주로서의 역사가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선형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20. [A]에 나타난 ‘랑케’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나라의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변 국가의 어휘들을 어휘군별로 분류하였다.
 - ② 고려시대 귀족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리들의 장신구와 생활 용품 등을 수집하였다.
 - ③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학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영토 경계를 나타내는 비석의 문구를 채록하였다.
 - ④ 과거에 일시 편입시킨 영토에 대한 지배권 회복을 주장하기 위해 러일전쟁 전후에 체결된 국제 조약 자료를 선별하였다.
 - ⑤ 조선시대 농민 계층의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해 임진왜란 전후의 토지 제도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를 정리하였다.

21. 윗글의 ‘드로이젠’과 <보기>의 ‘신사학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미국의 신사학파는 역사적 사실의 존재 방식은 영원한 실재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이며, 모든 역사는 자신의 관심과 자기 시대의 관점에 따라 과거 사실들을 해명한다고 보았다. 즉 그들은 역사 서술의 출발점을 역사가의 현재 인식이라고 보았다.

- ① ‘드로이젠’은 ‘신사학과’와 달리 역사가의 주관적 역사인식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군.
- ② ‘신사학과’는 ‘드로이젠’과 달리 역사가의 역사인식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군.
- ③ ‘신사학과’는 ‘드로이젠’과 달리 불변하는 현실이 역사인식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군.
- ④ ‘드로이젠’과 ‘신사학과’는 모두 인륜적 세계를 상정하여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설명하고 있군.
- ⑤ ‘드로이젠’과 ‘신사학과’는 모두 역사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역사적 사실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군.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보조,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격보조 등이 있다.

이 제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소비자가 X재와 Y재만을 구입한다고 할 때, 한정된 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를 구입 가능한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선을 예산선이라고 한다. 또한 X재, Y재를 함께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재와 Y재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최적의 소비선택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접점(G)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지점도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X재와 Y재가 정상재*일 경우, Y재에 대한 X재의 상대적 가격이 ㉠ 떨어지면, 가격비율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예산선이 바뀌게 된다. 이때 상품 조합도 달라져 최적 선택지점 역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X재의 수요는 늘리게 되고 Y재의 수요는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한다.

또한 X재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예전에 살 수 없었던, X재와 Y재의 상품 조합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상품들 간의 가격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X재와 Y재의 수요는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대체효과는 없고 소득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식품과 비식품 구입비를 지출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월 30만원의 소득보조를 시행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 간에 보조금 30만 원을 지출하는 데 그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식품과 비식품의 가격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대체효과는 없으며, 다만 30만 원만큼의 소득효과만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구입하려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대체효과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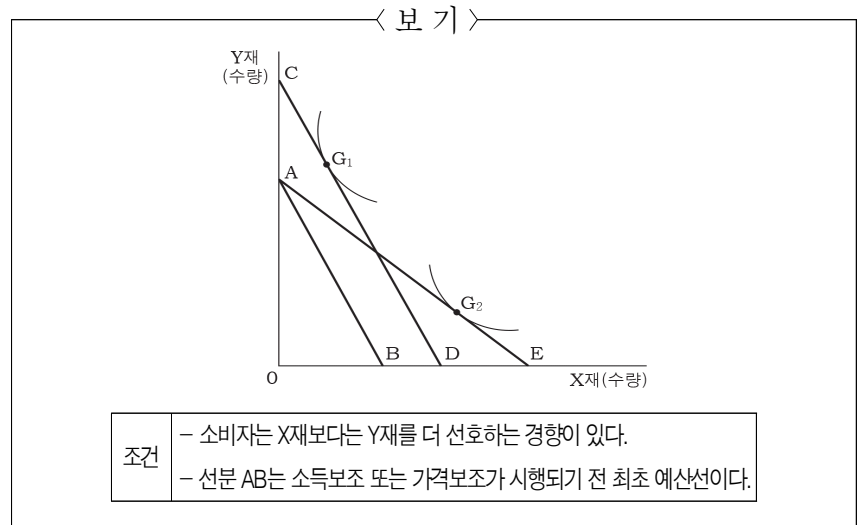
그런데 소득 범위 내에서 식품보다 비식품 구입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가 소득보조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 어려운 소득보조보다 소비자 수요를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보조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정상재 :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22.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차별 곡선의 정의
- ② 상품 조합의 유형별 특징
- ③ 실질 소득과 예산선의 관계
- ④ 최적 선택지점의 변화 원인
- ⑤ 가격보조와 소득보조의 차이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해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는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X재를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겠군.
- ③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X재에 대한 Y재의 상대적 가격비율의 변화가 생겼겠군.
- ④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정부는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더 예측하기 어렵겠군.
- ⑤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

24.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신문 기사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신문 ○○○○년 ○월 ○일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반기부터 ③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쌀과 라면 중, 쌀에 대한 가격 할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의 최적 선택지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정책이 시행된다면 ㉠에게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발생할 것이다.
- ③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쌀에 대한 ㉠의 수요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④ 정책이 시행된다면 ㉠의 예산선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차별 곡선은 변화할 것이다.
- ⑤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조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2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쌀이 떨어져 두 끼를 라면으로 때웠다.
- ②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 ③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④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 ⑤ 파란불 신호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넜다.

[26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의 줄타기는 줄광대와 어릿광대, 악공, 관중이 서로 어울려 삶의 애환과 신명을 공유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종합 예술이다. 줄타기는 기예, 재담, 노래 등을 연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극적 상황에 따라 관중이 참여하기도 한다.

줄광대는 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기예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줄 아래 지상의 어릿광대나 악공, 관중과도 재담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연행 방식은 줄광대가 올라서 있는 줄이라는 수평적 공간에서부터 관중이 위치한 공간으로까지 극적 공간을 수직적으로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입체적이다.

줄타기는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줄타기는 전체적으로 ‘줄고사-기예 I-놀이-기예 II-마무리’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참가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줄고사로 연회의 시작을 알린 후 기예 I이 연행된다. 줄 위에서 줄광대가 아슬아슬한 묘기를 선보이면 관중의 긴장감은 점차 고조된다. 기예 I에서 조성된 긴장은 이어 전개되는 재담과 노래 중심의 놀이를 통해 이완된다. 파계승을 풍자하는 ‘중놀이’와 다양한 계층을 희화화하는 ‘알짜놀이’ 등의 놀이가 극적 흥미를 제공하면서 기예 I에서 조성된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이다. 고난도 묘기들로 구성된 기예 II가 펼쳐지면 관중의 긴장은 더욱 고조된다. 정점에 달한 긴장이 마무리 과정에서 점차 이완되면서 전체 연행은 끝을 맺게 된다. 이와 같이 줄타기는 각 과정별로 긴장과 이완이 반복됨으로써 관중의 극적 몰입도를 높여 흥미를 배가시킨다.

한편, 줄타기 전체에 걸친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는 줄타기의 각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예 II는 외발만 딛고 뛰며 걷는 ‘앵금뛰기’, 두 다리를 붙이고 거꾸로 서는 ‘배 돛대 서기’ 등의 절묘한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과 기술 사이에는 재담뿐만 아니라 인물의 외양과 행동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모방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고난도의 연행으로 인해 조성된 긴장감이 시청각을 자극하는 흥미 요소들을 통해 이완되는 것이다.

이렇듯 줄타기는 민중의 삶과 신명을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를 통해 현장감 있게 풀어낸다.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형태는 자연의 섭리인 동시에 삶의 굴곡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줄타기는 보다 근원적인 예술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6. 윗글의 내용을 이해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줄타기에서 재담과 기예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② 줄고사는 줄타기 전체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줄타기 전체와 각 부분에 적용되는 극적 구조는 서로 다르다.
- ④ 줄타기는 자연의 순환 원리를 자의적으로 변형시켜 표현한다.
- ⑤ 줄타기에서 관중의 극적 몰입도는 ‘놀이’ 과정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줄타기 장면을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줄광대 : 이번에는 칠보 먼장치기로 나가는데, 배우씨* 꿈!

(줄 위에서 칠보 먼장치기를 한다.)

배우씨 : ㉠ 거, 좋군! 아니 산삼 먹었나 적삼 먹었나? 오늘은 왜 이리 잘 타는고.

줄광대 : 산에 나는 산삼, 바다 나는 해삼, 물에 나는 수삼, 홍도 나는 홍삼 다 먹었겠다. 자, 이번엔 맛 먼장치긴데 앞으로 내밀고 뒤로 뛰겠다. 배우씨 꿈!

(줄 위에서 맛 먼장치기를 한다.)

배우씨 : ㉡ 오도방정이로구나. 어지러워 못 보겠다.

줄광대 :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이걸 허궁 가세트림인데 가운데 한 길 이상 떠서 틀어 돌아앉는 놈이렸다. 배우씨 꿈! (㉢ 줄 위에서 허궁 가세트림을 한다.)

배우씨 : 곰배팔이 외새끼 꼬듯 하는구나.

줄광대 : (줄 복판에 앉아서) 야, 이렇게 줄만 탈 것이 아니라 노랫가락 한 마디 하겠다. ㉣ 노래란 본디 웃으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 손님 웃다가 골내지 마시오. 그럼 노래할까, 재담할까?

관중 A : 그럼 한번 골 때리듯 노래해 보소.

줄광대 : (노래 조로) ㉤ 때는 때는 어느 땐고 녹음방초 무성하다 버들버들 속잎 나고 가지가지 꽃이 피어 병글병글 웃을 땐데, 종달새 지지배배 꾀꼬리 꾀꿀꾀꿀.

* 배우씨 : 이제 막 기예를 배우기 시작한 어릿광대를 가리킴.

- ① ㉠ : 재주에 대해 평가하면서 줄광대와 소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군.
- ② ㉡ : 줄광대의 기예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관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군.
- ③ ㉢ : 고난도의 재주를 부림으로써 관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군.
- ④ ㉣ : 관중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여 줄타기 공간을 수직의 공간으로 확대시키고 있군.
- ⑤ ㉤ : 줄광대의 노래를 삽입하여 기예로 인해 조성된 관중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있군.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어른은 추위를 느끼면 몸을 떠는 등의 행동을 통해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유지한다. 세포의 구성 물질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음식을 통해 얻은 포도당을 아데노신삼인산(ATP)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둔다. 이후 체온이 내려가면 근육을 떠는 과정을 통해 ATP가 분해되어 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생아는 성인만큼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체온을 유지할 정도로 근육을 떨 수 없어, 등뼈나 신장 주변에 분포한 갈색 지방 조직을 통해 체온을 유지한다. 갈색 지방 조직을 구성하는 갈색 지방 세포는 지방산이 포함된 기름방울과 미토콘드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기질, 내막, 외막, 내막과 외막 사이의 막간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 갈색 지방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역시 그 구조는 같다. 하지만 열 발생 과정에서 내막에 있는 특정 단백질이 작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 단백질이 작용하여 신생아가 체온을 유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의 체온이 내려갔을 때, 뇌의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보내면 교감 신경 말단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로 인해 갈색 지방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β 수용체가 자극을 받으면, 갈색 지방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던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을 거쳐 기질로 운반된다. 이후 지방산의 분해로 발생한 전자가 조효소에 의해 내막에 존재하는 막관통 단백질로 전달된다. 이로 인해 막관통 단백질들은 자신을 통로로 하여 기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소 이온(H^+)을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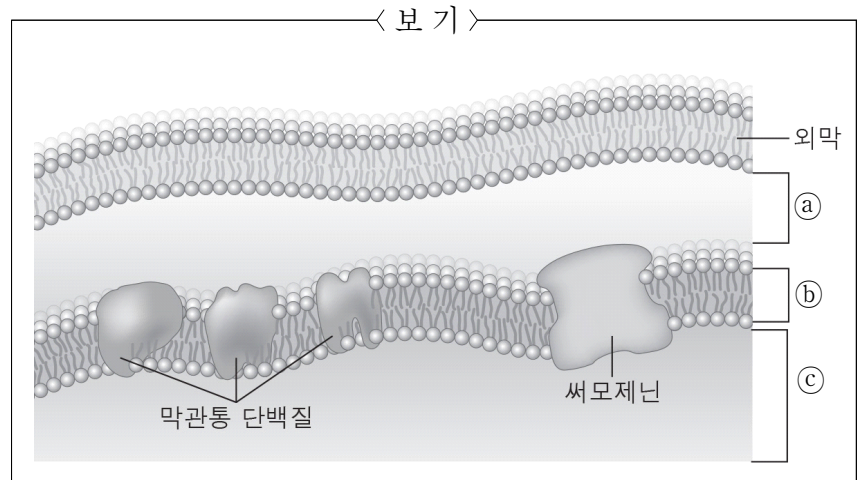
그런데 수소 이온이 기질에서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면, 막간 공간과 기질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농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농도 차이로 인해 양성자 이동력이라 부르는 에너지가 형성되고, 이 힘에 의해 수소 이온은 농도가 낮은 기질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내막은 수소 이온과 같은 양성자에 대해 불투과성이기 때문에 막간 공간으로 이동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내막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통로를 거쳐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수소 이온이, 갈색 지방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만 존재하는 ‘썬모제닌’이라는 단백질 통로를 거쳐 이동한다는 점이다. 일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수소 이온이 기질로 되돌아갈 때 ATP 합성효소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양성자 이동력을 ATP 합성에 사용한다. 이와 달리 갈색 지방 세포의 경우 썬모제닌은 양성자 이동력을 ATP 합성에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소 이온은 양성자 이동력에 의해 가속도가 붙어서 기질의 수분 등과 부딪히게 되고 그 결과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8.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생아의 체온 조절 원리
- 전자의 전달 과정을 중심으로
- ② 갈색 지방 세포의 구조와 특징
- 지방산의 분해 과정을 중심으로
- ③ 신생아의 에너지 저장 방법
- 미토콘드리아의 종류를 중심으로
- ④ 갈색 지방 세포의 생성과 분포
-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을 중심으로
- ⑤ 신생아의 체온 유지 방법
- 갈색 지방 세포의 기능을 중심으로

29. <보기>는 ㉠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 ㉡를 거친 지방산이 ㉢에서 분해되면, ㉢의 수소 이온이 ㉠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 ② ㉢의 전자가 막관통 단백질에 전달되면, ㉠에서 수소 이온이 생성될 것이다.
- ③ ㉠과 ㉢의 수소 이온 농도 차로 인해 ㉠의 수소 이온은 썬모제닌을 통과한다.
- ④ ㉠의 수소 이온이 ㉢로 이동할 때에는 일반 세포에서와 달리 가속도가 붙는다.
- ⑤ ㉠의 수소 이온과 ㉢의 수소 이온은, 서로 다른 단백질 통로를 거쳐 각각 ㉢와 ㉠로 이동한다.

30.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와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 글을 읽어 보니, 일반 세포의 경우 양성자 이동력을 (A)에 사용하고, 갈색 지방 세포의 경우 (B)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 | A | B |
|----------|--------|
| ① ATP 합성 | 열 생성 |
| ② ATP 분해 | 열 생성 |
| ③ ATP 합성 | ATP 분해 |
| ④ 열 생성 | ATP 합성 |
| ⑤ 열 생성 | ATP 분해 |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초(芳草)를 불와보며 난지(蘭芝)도 뜨더보자
비 세여라 비 세여라
일엽편주(一葉片舟)*에 시른 거시 무스것고
지국충(至芻僦) 지국충(至芻僦) 어사와(於思臥)

㉠ 갈제논 닉뿐이오 올제논 돌이로다

<춘(春) 7>

구즌비 머저 가고 시넨물이 몹아온다
비 떠라 비 떠라
㉡ 낫대를 두러메니 기픈 흥(興)을 금(禁) 못홀와
지국충(至芻僦) 지국충(至芻僦) 어사와(於思臥)

㉢ 연강텃장(煙江疊嶂)*은 뉘라셔 그려넨고

<하(夏) 1>

웃 우희 서리 오딧 치운 줄을 모를로다
단 디여라 단 디여라
㉣ 도선(釣船)*이 좁다 흐나 부세(浮世)*와 얻더흐니
지국충(至芻僦) 지국충(至芻僦) 어사와(於思臥)

㉤ 닉일도 이리흐고 모뢰도 이리흐자

<추(秋) 9>

— 뭍ᄫᆞ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흐고
비 댕여라 비 댕여라

[A] 머흔 구름 한(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ᄫᆞ리온다
지국충(至芻僦) 지국충(至芻僦) 어사와(於思臥)

— 파랑성(波浪聲)* 염(厭)티* 마라 던훤(塵喧)*을 막ᄫᆞ또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일엽편주: 한 척의 작은 배.
* 연강텃장: 안개 낀 강과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
* 도선: 낚싯배.
* 부세: 헛되고 덧없는 세상.
* 파랑성: 물결 소리.
* 염티: 싫어하지.
* 던훤: 속세의 시끄러움.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통사 구조가 유사한 구절을 대응시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⑤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반복하여 심리 변화의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3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화자가 친숙하게 대하는 소재인 ‘돌’은 자연에 동화된 삶을 드러내는군.
 - ② ㉡에서 화자의 흥을 돋우는 ‘낫대’는 자연에서 느끼는 충만감을 고조시키는군.
 - ③ ㉢에서 ‘그려넨’ 것으로 여기는 ‘연강텃장’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군.
 - ④ ㉣에서 ‘부세’와 대응하는 ‘도선’은 세속적 삶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반영하는군.
 - ⑤ ㉤에서 화자가 기대하는 ‘닉일’과 ‘모뢰’에는 현재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군.

33.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러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잇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샤
홀룡한 군자들아 낚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툼 이 없을 건 다만 이건가 여기노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① <보기>는 [A]와 달리 현실 개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보기>와 달리 현재의 삶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A]의 ‘구름’은 <보기>의 ‘명월’과 달리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자연물로 기능하고 있다.
- ④ [A]는 ‘뭍ᄫᆞ’와 ‘세상’의 대비를 통해, <보기>는 ‘강호’와 ‘풍월 강산’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좌승상을 지낸 정진희의 아들 을선과 우승상을 지낸 유한경의 딸 추연은 서로 혼인을 약속한 사이다. 추연의 생모는 추연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고, 유한경은 후실로 노씨를 들이게 되는데 노씨는 추연을 박대한다. 한편 을선은 장원급제하여 이부시랑이 되고 초왕으로 봉해진 아버지와 함께, 추연과 혼인하고자 유소저의 집으로 간다.

각설. 이때 노씨 매양 소저를 죽이고자 하더니, 일일은 독한 약을 음식에 넣어 소저를 주되 소저 마침 속이 불편한지라 이에 받아 유모에게 들게 하고 침소에 돌아와 먹으려 할새, 하늘의 살피심이 있어, 홀연 난데없는 바람이 일어나 티끌이 죽에 날려들거늘 소저 티끌을 건져 문밖에 버리니 푸른 불이 일어나더라. 이에 크게 놀라 유모를 불러 연유를 말하니 유모도 함께 놀라 이에 개를 불러 죽을 먹이니, 그 개 즉시 죽거늘 소저와 유모 더욱 놀라 차후는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유모의 집에서 밥을 지어 수건에 싸다가 겨우 연명만 하더라. 노씨 마음에 헤오되, ‘약을 먹여도 죽지 아니하니 가장 이상하도다.’하고 다시 해할 계교를 생각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길일이 다다르매 정시랑이 위의를 갖추어 여러 날을 행하여 유승상 집에 이르니 시랑의 풍채 전일보다 더 웅출하여 운무같은 관대를 입고 허리에는 황금 각대를 띠었으니 천상 신선이 하강한 듯하더라.

(중략)

이튿날 예를 갖추어 전안(奠雁)*할 때 근처 수령이며 시비와 하인 무리지어 신부를 인도하여 이르매 신랑이 교배석(交拜席)에 나아가 눈을 들어 신부를 잠깐 보니 머리에 화관을 쓰고 몸에 채의(彩衣)를 입고 무수한 시녀 옹위하였으니 그 절묘한 거동이 전에 추천하던 모양보다 뛰어나더라.

그러나 신부 수심이 가득하고 유모 눈물 흔적이 있거늘 심중에 이상하나 누구를 향하여 물으리오. 이에 맞절하고 침소로 나아가니 좌우에 향촉과 운무병풍이 황홀한지라. 홀로 소저를 기다리더니 이윽고 유모 축을 밝히고 들어오거늘 시랑이 팔을 들어 맞아 신부에게 자리를 청한 후에 축을 물리고 원앙이불을 펼치니 문득 창밖에 수상한 인적이 있거늘 마음에 놀라 급히 일어나 앉으니 어떤 놈이 말하되,

“네 비록 지금 벼슬을 하였으나 남의 계집을 품고 누웠으니 죽기를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하거늘 창틈으로 엿보니 신장이 아홉 척이요, 삼척장검(三尺長劍)을 비껴 차고 섰거늘 이를 보니 전신이 떨리어 칼을 빼어 그놈을 죽이고자 하여 문을 열고 보았더라. 문득 간데없거늘 분을 참지 못하여 탄식하고 생각함에 ‘오늘 교배석에서 보니 수심이 가득하여 이상히 여겼더니 원래 이런 일이 있도다.’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들고 소저를 죽여 분을 풀고자 하다가 또 생각하되, ‘내 옥 같은 마음으로 어찌 저 더러운 계집을 침노하리요.’하고 옷을 입고 급히 일어나니 소저 경황 중 가로되,

“군자는 잠깐 앉아 첩의 말을 들으소서.”

하거늘 시랑이 들은 체 아니하고 나와 부친께 그 말을 고하고 바빠 가기를 청한대 초왕이 크게 놀라 바빠 승상을 청하여 지금 출발하여 상경함을 이르고 하인을 불러 행장을 차리라 하니 유승상이 계단에 내려 물어 가로되,

“어찌된 연고로 이 밤에 상경코자 하십니까.”

정공 부자 아무 대답없이 출발하니라.

원래 이 간부(姦夫)로 칭하는 자는 노녀의 사촌 오라비 노태니 노씨 지난 날 독약을 시험하되 소저 무사함을 시기하여 밤낮으로 죽이기를 꾀하더니, 문득 길일이 다다르매 일계를 생각하고 이에 심복으로 노태를 불러 가만히 차사(此事)를 이르고 금은을 많이 주어 실행하라 함에 노태 금은을 욕심내어 삼척장검을 잡고 달 밝은 밤에 소저 침소에 이르러 동정을 살피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유소저를 갱참(坑塹)*에 넣으니 가련하다.

유소저 백옥 같은 몸에 누명을 얻으니 원정을 누구에게 말하리오. 분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빼어 죽으려 하다가 다시 생각하니 ㉠ ‘이렇듯 죽으면 내 일신이 옥 같음을 누가 알리오’하고 이에 적삼을 벗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혈서를 쓰니 눈물이 변하여 피가 되더라. 유승상이 초왕을 보내고 급히 안으로 들어와 실상을 알고자 하나 노씨는 모르는 체하고 먼저 물어 가로되,

“신랑이 무슨 연고로 심야에 급히 가나이까.”

승상이 말하되,

“내 곡절을 모르매 제 노기 충천하여 일언을 부담하더니 어찌 연유를 알리요. 자세히 알고자 하노라.”

노씨 승상 귀에 대고 가로되,

“첩이 잠결에 듣사오니 신랑이 방문 밖에서 어떤 남자와 소리를 지르며 여차여차하니 아무거나 추연에게 물으소서.”

승상이 즉시 소저 침소에 가니 소저 이불을 덮고 일어나지 아니하거늘 시비를 시켜 이불을 벗기고, 꾸짖어 가로되,

“네 아비 들어오되 기동함이 없으니 이 무슨 도리이며, 정랑이 무슨 일로 밤중에 돌연히 돌아가니 이 무슨 일인지 너는 자세히 알지니 이실직고하라.”

소저 겨우 고하여 가로되,

“아버지, 불초한 자식을 두었다가 집을 망하게 하오니 소녀의 불효 죽어도 여한이 없소이다.”

[B] 하고 함구무언(緘口無言)하니 승상이 다시 말하되,

“너는 어찌 일언을 아니하느냐.”

재삼 묻되 끝까지 일언을 답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비처럼 쏟으니 승상이 생각하되,

‘전일의 지극한 성효(誠孝)에도 오늘날 불효를 끼치니 무슨 곡절이 있도다.’

하고 일어나 외당으로 나오더라.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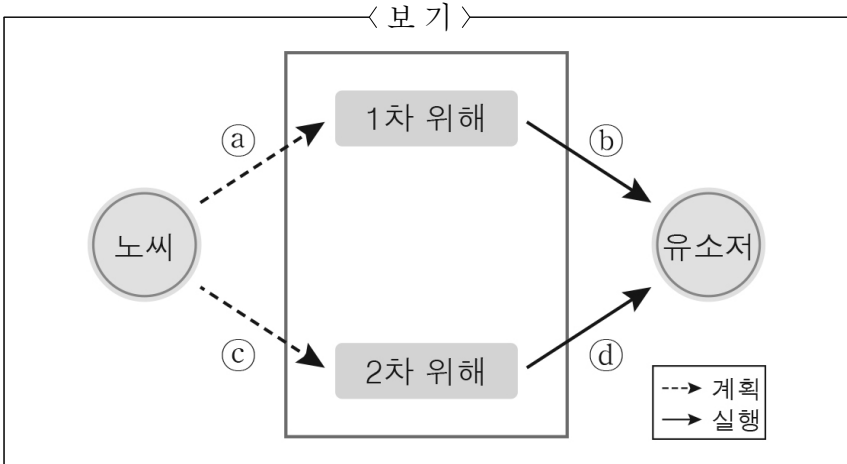
* 전안: 혼인 때에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의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

* 갱참: 깊고 길게 파 놓은 구덩이.

3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초왕’은 정시랑의 성급한 행동을 꾸짖었다.
- ② ‘노씨’는 유승상을 부추겨 유소저의 혼사를 방해했다.
- ③ ‘유소저’는 유승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 ④ ‘유승상’은 정공 부자가 떠날 당시 그들이 떠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 ⑤ ‘정시랑’은 유소저의 안색을 보고 노씨와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35. 윗글의 서사 구조를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노씨는 자신을 ㉡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 ② ㉡에서 유소는 유소저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다.
- ③ ㉠에서 노태는 노씨의 사주를 받은 대로 ㉢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 ④ ㉡의 결과는 노씨가 ㉢를 하게 하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 ⑤ ㉡, ㉢에서는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되어 유소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3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② [B]와 달리 [A]는 과장된 비유를 통해 인물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특정 사물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7. ㉠에 드러난 ‘유소저’의 심리를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 ③ 수구초심(首丘初心)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일희일비(一喜一悲)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향하면서 과거 삼촌에 얹힌 기억을 떠올리며 애써 잊으려 한다. ‘나’의 조부는 몰락한 친일 거부였고, ‘나’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 공산주의자가 되어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서출(庶出)이나 천성이 밝고 착했던 삼촌은 국방군이 되어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다.

마침내 삼촌이 나타났다. 두 팔로 가슴을 잔뜩 싸안은 그는 묵묵히 병원 문을 나섰다. 나는 잠자코 뒤를 따랐다. 허리를 꾸부정하게 구부린 채 그는 걸음마를 하듯 조심조심 걸었다. 한 발자국을 내딛는 데에도 무진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 우리는 텅텅거리는 시외버스를 타야만 했다. 수술만큼이나 길고 조마조마한 귀로였다. 어쩌면 삼촌은 가슴팍을 찢개고 작은 **파편 조각**을 뽑아낸 대신 의사들로 하여금 보다 크고 위험한 폭탄 같은 것을 거기다 숨겨 두게 한 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수술은 실패였다. 무려 다섯 시간에 걸친 집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편 조각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삼촌은 간신히 골방으로 돌아와 드러눕고 나서야 내 어머니께 씹어 뱉듯 말했다.

“백죄 몸뚱이만 생으로 난도질해 놔다 아입니까. 두 번 다시 할 짓 못됩니다. 고무다리에 외팔 인생도 썩비린 판국에 그까짓 쇳조가리 하나 들었으마 어떻고 안 들었으마 어떻겠읍니까. 어차피 죽으마 썩어질 몸뚱이…… 내사 마, 이대로 좋습니다. 의사들은 다시 해보자 갑니다만 나는 싫다 아입니까. 거죽만 멀쩡하지 난들 성한 사람입니까? 불구 인생이기는 피장파장인기라요…….”

삼촌은 두 번 다시 수술을 받지 않았다. 곳은 날이면 몸의 어딘가가 아프다고 일쭉 끔끔 앓으면서도 병원은 찾지 않았다. 밝고 낙천적이던 원래의 성품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었다. 수술자리가 아문 뒤에도 그는 여전히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내게 자주 들려주던 그 전쟁 이야기도 더는 꺼내지 않았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을 뒤덮은 그늘도 갈수록 더 짙어지지만 하는 그를 두고 내 어머니는 그것이 모두 삼촌의 가슴팍에 박혀 있는 쇳독(毒) 때문이라며 얼마나 자주 한숨짓곤 했던가…….

(중략)

“자네 아버님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돌아오는 차 중에서 그는 불쑥 말했다.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즐기찬 희망 때문이었다. 6·25 한 해 전에 영영 행방을 감추어 버린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계시리란 희망을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을 차려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얹게 깔리기 시작한 창 밖 거리만을 내다볼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 버렸다. 내 집으로 모시마고 나는 물론 말했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대꾸했을 따름이었다.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마는 어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닝가? 빈 껌데기만 남아서 냉마매로 굴러댕긴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네. 인제사 생각하마, 기왕 한 구덩이

에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재……, 자네 짐사람한테는
날 만났단 얘기도 하지 마소.”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그런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곰곰 되씹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삼촌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흔과도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른다고까지 나는 생각했다. 비로소 나는 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체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늑두한 골방에 드러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재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내뱉었던 말들, 곳은 날이면 육신의 어딘가가 아프다면서 오밤중에도 곧잘 끄끄 앓던 일, 그리고 또 갈수록 **말수가 줄어든** 대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느껴지던 기침 소리 등등…… 그랬다.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 버린 그 삼촌에게서 나는 문득문득 어딘가로 종적을 감추어 버린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그의 **기이한 행적**들을 죄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귀가 한 해가 가까워 오던 이듬해 초여름에 삼촌은 최초의 범법행위를 저질렀었다. 구닥다리 **엠원 소총**을 몰래 꺼내 들고 사냥을 나갔던 그는 멧돼지 대신에 사람을 쏘았던 것이다. 공판정에 서 있던 삼촌의 모습을 나는 잘 기억해 낼 수 있었다.

표적물을 착각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단호히 대답했었다.

“천만에, 사람인지 짐승인지쯤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디.”

“그렇다면 상대의 얼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는가?”

“물론임디. 낯선 얼굴이었습디.”

“낯선 사람을 쏜 이유가 무엇인가?”

“…….”

“그럼 다시 묻겠는데 자기방어가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살해가 목적이었는가?”

“처음엔 산짐승이 움직이고 있거니 생각했습디.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표적이 불쑥 노출됐습디. 가슴쇠 위에 떠오른 것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습디. 그것도 낯선… 갑자기 **살의(殺意)의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러자 상대가 쓰러졌습디.”

“최초의 일발을 발사한 후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다시 두 발을 더 발사한 이유는?”

“상대가 픽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뿐 나 자신은 방아쇠를 당긴 기억도 또 충성을 들은 기억도 없었기 때문임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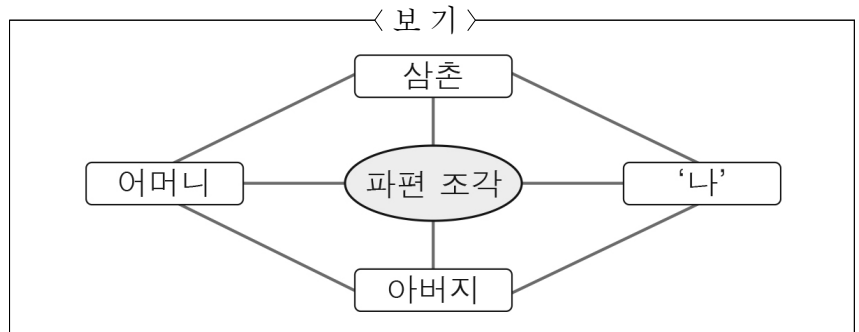
일테면 그것이 삼촌의 기이한 생애의 시작이었던 셈인데, 그 이후의 거듭된 행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로선 이해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불법 무기 소지와 살인미수로 6년형을 살았었다. 출감 후 내 어머니는 서둘러 그를 장가들었지만 결혼 두 해 뒤에 그는 다시 재범을 했고, 재출감 1년도 못 되어 삼범을 기록했다.

- 이동하, 「파편」 -

3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사건의 긴박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인물 간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시간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중심 사건을 여러 인물들의 시각으로 서술하여 사건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39. <보기>는 **파편 조각**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어머니는 삼촌의 갑작스런 성격 변화가 파편 조각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 ② 어머니는 파편 조각을 통해 행방이 묘연해진 아버지의 비극적인 삶을 떠올린다.
- ③ 삼촌은 어머니에게 파편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재차 받지 않으려는 의사를 밝힌다.
- ④ ‘나’는 파편 조각이 삼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⑤ ‘나’는 파편 조각과 삼촌의 말을 연결하여 아버지 죽음의 정황을 삼촌이 알고 있으리라 추정한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읽고 짧은 서평 쓰기 활동을 해 보았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작가가 겪은 유년기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후 소설로, 이념적 갈등보다는 전쟁의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고 있다. 즉, 전쟁이 초래한 비인간화, 인간성 황폐화, 개인에게 남긴 상처, 사회 부적응과 인간 소외, 가치관 혼란의 문제와 이에 대한 극복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서평 쓰기

- ㉠ 삼촌이 자신을 ‘빈 껍데기’로 표현한 것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 ㉡ 삼촌의 ‘말수가 줄어든’ 것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한 채 점차 위축되어가는 상처 입은 삶의 모습으로 진단할 수 있다. …………… ㉡
- ㉢ 삼촌의 ‘기이한 행적’은 전쟁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
- ㉣ 삼촌이 ‘엠원 소총’을 소지한 것은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정체된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 ㉤ 삼촌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살의의 충동’은 폭력적 상황에 내몰린 평범한 인간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산물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

① ㉠

② ㉡

③ ㉢

④ ㉣

⑤ ㉤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먹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켜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이를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샛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4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시적 공간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는 (가)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A] ~ [E]에 대해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시에서는 감각적 심상이 많이 활용됩니다. 「고향 앞에서」에 사용된 다양한 심상들이 작품 속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A]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먹울멍 떠내려간다. [B]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C]
간간이 켜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D]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E]

- ① [A]에서는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② [B]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현실과 대비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③ [C]에서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 ④ [D]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처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⑤ [E]에서는 청각과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근원적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시인은 비판적 성찰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낸다. 화자는 하루의 노동을 마감하고, 삶의 피로움과 슬픔을 털어내는 일종의 정화 의식을 치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희망 없이 반복되는 삶에 무력감을 느끼며 산업화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①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슬픔’을 ‘퍼다 버리’는 것은 삶의 슬픔을 털어 내려는 정화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바라보는 것은 화자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삶을 자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돌아갈 뿐이다’, ‘돌아가야 한다’에는 희망 없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화자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군.
- ⑤ ‘샛강바닥 썩은 물’은 산업화된 현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군.

[44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 봄에 이웃에서 파초 한 그루를 사 왔다. 얻어 온 것도 두어 뿌리 있었지만 모두 어미 뿌리에서 새로 찢어 낸 것들로 앓아서나 들여다볼 만한 키들이요 ‘요게 언제 자라서 키 큰 내가 들어선 만치 그들이 지나!’ 생각할 때는 적이 한심하였다.

그래 지나다닐 때마다 눈을 빼앗기던 이웃집 큰 파초를 그예 사 오고야 만 것이다. 위낙 크기도 했지만 파초는 소 선지가 제일 좋은 거름이란 말을 듣고 선지는 물론이고 생선 씻은 물, 깻묵물 같은 것을 톱툰이 주었더니 작년 당년으로 성북동에선 제일 큰 파초가 되었고 올 봄에는 새끼를 다섯이나 뜯어내었다. 그런 것이 올 여름에도 그냥 그 기운으로 장차게 자라 지금은 아마 제일 높은 가지는 열두 자도 훨씬 더 넘을 만치 지붕과 함께 솟아서 퍼런 공중에 드리웠다.

지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큰 파초는 처음 봤군!” 하고 우러러 보는 것이다. 나는 그 밑에 의자를 놓고 가끔 남국의 정조(情調)를 명상한다.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들은, 눈을 씻어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되 듣는 이의 마음에까지 비를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제 팔아버리셔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 본 걸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인제 뒤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파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것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쥬. 그까짓 슬쩍 팔아버리시쥬.”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풀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하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담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쥬.”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창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창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쩍은 소리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텨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을 피우면 열대지방과 달라 한 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담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낳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가 한 번 꽃을 피웠으니 죽은들 어떠리! 하물며 한마당 수북하게 새순이 솟아오름에랴!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라 이제 죽을 운명의 파초니 오 원이라도 받고 팔아준다는 사람이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무심코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거웠다.

“어서 가슈. 그리구 올가을엔 움이나 작년보다 더 깊숙하게 파주슈.”

“참 딱하십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다.

— 이태준, 「파초」 —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② 대화를 삽입하여 대상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를 대비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글쓴이의 객관적인 감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수필의 소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평범한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일상적인 소재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① 파초의 크기에 경탄하며 ‘지나는 사람’에게서 파초를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톱툰이 좋은 거름을 주는 등 파초를 기르는 경험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파초는 ‘나’의 일상과 관련된 소재임을 알 수 있군.
- ③ 파초 앞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고 마음에 비를 뿌린다고 표현한 것은, ‘나’가 파초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군.
- ④ 파초를 팔라는 ‘앞집 사람’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나’가 파초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군.
- ⑤ 자신의 눈이 뜨거워졌다는 말을 통해 ‘나’가 하고 싶은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겠군.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